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강원도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Life Satisfac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 Focused on Cheorwon Area -

이 영 희 (국방부 전문상담관 - 주저자)

심 영 미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외래교수 - 교신저자)

강 갑 원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Abstract

Young Hee Lee / Young Mi Sim / Gab Won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life satisfac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Cheorwon, Kangwon-do.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are collected from survey of 159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n cheorwon. Analysis of questionnaire research was utilized SPSS PASW 18.0 version program in analyzing data. And Frequenc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①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vocational training and job placement should be established. ② Manag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atchmaking company supervision is important. ③ It should explore various ways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international migrant women. ④ There is a need to promote openness and posi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주 제 어: 국제결혼 이주여성,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Keyword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 서론

국제사회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확장과 함께 이동인구의 현지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현저한 증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및 사회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증가 현상은 우선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노동력을 위시한 여성 인구의 이주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 빈곤과 실업 등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고 가사 노동이나 서비스 직종에서의 인력 수요가 많은 나라로 이주하며, 더 나아가 많은 여성들이 일시적인 이주가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nt)' 현상 및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족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이영희, 2011).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23,316건으로 총 혼인 건수의 7.6%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약 69.3%로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가구 수는 387,000 가구로서 우리나라 전 가구 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만정도 다문화가정이 생겨나고 있다(통계청, 2014).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농어촌 및 산업공단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의 혼인의 어려움, 둘째, 여성 사회진출 확대에 의한 혼인기피, 셋째,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국가 간 불균등한 여성의 상품화 및 영리적 세력의 개입(설동훈 외, 2005)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부 간의 갈등과 불만족, 그리고 생활만족도에서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윤형숙, 2005; 설동훈,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가정은 물론이며, 지역사회 및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남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여성들 가운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실패하여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이혼건수 115,292건 중 다문화 이혼은 13,48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 이혼율에서 11.7%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 보다는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심의 정책(김순이, 2009)에 치중하여 아직 국제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의료, 문화, 복지서비스

연계에 따른 지원 정책은 부족하고 미비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9).

이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 및 적응실태 그리고 이혼 등에 대한 연구들이 비교적 표본이 적은 단위의 전국규모 혹은 지역적으로 일부 수행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철원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근래 들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현황 분석이나 차이 규명, 상호 관련성의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철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철원지역의 다문화가족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국제결혼 이주의 개념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체로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결혼관이 달라지면서 특수한 경우로 인식되던 국제결혼이 일반화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의 이주화는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단독 이주라는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송병호, 2009). 이러한 현상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의 국제 이주현상으로 해석된다. 이주는 국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사람, 학생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다양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까지 광범위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여성의 이주화 현상은 저개발국의 여성들을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시키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이주 현상은 과거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이주했던 국제 이동과는 달리,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이주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더불어서 학생을 비롯한 노동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으로 인하여 점차 국제 이동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다가 국내에서 근로, 생활, 군복무,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칭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

적을 갖지 아니하거나 귀화 또는 혼인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도 이주민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순이,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국적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삶의 만족도 관련 개념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인간이 현재 삶에서 바라던 것과 생활에서 성취한 것과의 비교로 인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상태에 대한 평가이다. 즉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 주관적인 감정을 의미하며,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삶의 질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감 또는 만족도를 의미하는데, 개인 또는 집단 구성원이 삶의 영역에서 객관적인 조건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될 수 있다. 여기서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상태를 의미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의 삶의 만족도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현재 생활에서의 자신의 기대, 욕구, 희망, 또는 내국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를 의미한다. 반면에 정서적 차원의 삶의 만족도는 국제결혼 이민자로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상태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현재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미래 삶의 충족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정과 만족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한편 장지혜(2007), 정주연(2008)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60% 이상이 평균 소득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국내결혼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추정컨대, 국제결혼 이민여성이 한국에 온 동기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며,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체감하고 있는 주관적 삶의 질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 즉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상태는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사회적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각각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사랑, 자기 확신, 자기존중, 자기수용, 자기평가, 자기가치 등과 유사한 용어로 지칭되는 긍정적인 의미의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습관적이고 계속 유지되는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신의 중요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은 양면성을 지니는데 보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질 때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일에도 적극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닐 경우 비생산적이며 삶에 부적응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인정하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자아존중감의 정의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구체화시키면, 자아존중감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정의와 자기존중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신이 내리는 자아의 평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이영희, 2011). 따라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특성을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를 의미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가치, 능력, 통제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Curry & Johnson, 1990). 첫째, 가치의 차원은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좋아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기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차원이다. 둘째, 능력의 차원은 나에게 맡겨진 과제나 내가 정한 목표를 완수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말한다. 셋째, 통제의 차원은 내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가치, 능력, 통제의 개념적 분류를 적용하였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속의 인간으로서 ‘모두 함께’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가운데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도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숙, 2009).

그리고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범주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이다. 둘째, 개인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이다. 셋째,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 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적 지지이다. 넷째,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이다.

이 외에 많은 학자들에 의한 사회적 지지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한 개인의 삶에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물리적 체계, 환경체계, 그리고 인적체계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얻을 수 있는 원조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 인간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심리적 복지실현, 신체적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김정혜, 2009).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이주여성이 이주로 인한 생활변화를 극복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낯선 환경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있어서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개념적 분류를 적용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신경희·양성은, 2006), 풍습과 문화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적응의 문제(김선화, 2007), 국적 취득의 어려움 및 체류자격에 따른 불안정(국가인권위원회, 2004), 경제적 어려움(이금연, 2003), 문화적 갈등(권복순 외, 2006), 사회적 멸시와 냉대로 인한 소외감(임안나, 2005),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이선주, 2005)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¹⁾의 연구로 국제결혼 가족들의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그 대책 방안의 필요성을 실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연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실태와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강유진(1999), 김선아(2007), 보건복지부

1)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 이주여성쉼터,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외국인 노동자센터 등의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단체에 접수된 여성결혼이민자나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통해 국제결혼 가족의 가정폭력이나 갈등,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였다.

(2005), 양정화(2005) 등의 연구와 같이 이들의 생활실태를 비롯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롯하여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도와 같은 유사개념과 변인들 간의 상관성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나영(2007)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가정적 지지와 사회활동 참여도를 중심으로 그들의 현재 생활만족도를 조사하여 차이점과 영향을 분석했으며, 박옥임(200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자녀수, 동거가족, 자아존중감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박정숙(200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족갈등과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과 관계변인에 따른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했으며, 신정현(2008)은 한국어 능력에 따른 능숙한 의사소통,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옥선(200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그에 따른 문제와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은주(2009)는 자아존중감, 삶의 질, 사회적 지지 간에 상호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김정혜(200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 지역적 특수성을 인식하여 도시와 농촌의 사회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출신국가, 종교, 자녀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김혜신(2011)은 광주,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족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했다. 변수구성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학적 변인, 결혼과정 변인, 문화적응 변인, 심리사회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했으며, 심리사회적 변인에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표본이 적은 단위의 전국규모 혹은 지역적으로 일부 수행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철원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근래 들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단순히 현황분석이나 차이 규명, 상호 관련성의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원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증분석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의 대상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철원지역의 다문화가구 수는 262가구로 6개 읍면에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기스탄 등의 다양한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배포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국적에 따른 언어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다. 이 중 철원지역 내 다문화 지원센터의 등록인원인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협조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설문문에 응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한 186명을 선정하여 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 자료수집 방법

조사에 필요한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각기 다른 모국어를 고려하여 한국어를 기본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필리핀), 일본어, 영어의 총 6개 언어로 작성하였다. 설문문에 있어서는 다문화 지원센터 내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른 집합교육 일정을 이용한 일괄적인 조사방법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조사에 앞서 본 연구 목적과 그에 따른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 기관의 선생님들은 대상자인 이주여성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설문은 자기기입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둘째,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만, 일부 교육에서 배제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자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언어권 외의 이주여성들에게는 지원센터 내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1년 10월 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186부로, 이 중 173부를 회수하여 그 중에서 응답이 미비한 설문을 제외하고 159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효설문지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중국 64부(40.3%), 베트남 34부(21.4%), 기타 국가 61부(38.4%)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변수 군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중 인구사회적 특성을 제외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각각 10개 문항으로 각 항목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중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제시한 척도를 국내에서 전병제(1974)가 번안하고, 고은주(2011) 등 다수의

후속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적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관련 6개 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관련 문항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분석 시 역코딩하여 적용하였다.

〈표 1〉 자아존중감 조사항목

문항	내용	조사도구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1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	긍정	3.62	0.891	Cronbach's α 0.821
2	자신의 성품에 대한 생각	긍정	3.58	0.783	
3	자신의 성공에 대한 생각	부정	3.50	0.920	
4	자신의 업무에 대한 통제	긍정	3.59	0.851	
5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1	부정	3.23	0.756	
6	자신의 태도에 대한 생각	긍정	3.48	0.848	
7	자신에 대한 만족	긍정	3.35	0.843	
8	자신에 대한 존중	긍정	3.37	0.792	
9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2	부정	3.47	0.899	
10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3	부정	3.39	0.856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House(1981)와 Kahn & Antonucci(1982)가 개발한 척도를 박지원(1985)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고, 고은주(2011) 등 다수의 후속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각 항목은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2〉 사회적 지지 조사항목

문항	내용	조사도구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1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평가적 지지	3.17	0.773	Cronbach's α 0.900
2	자신의 금전적 요청에 대한 대응	물질적 지지	2.65	0.921	
3	자신의 일에 대한 인정	평가적 지지	3.09	0.786	
4	자신이 느끼는 친밀감	정서적 지지	3.22	0.777	
5	자신이 주변을 의지할 수 있는 정도	정서적 지지	3.20	0.884	
6	자신의 위기 시 해결방안의 제시	정보적 지지	3.17	0.894	
7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	정서적 지지	3.16	0.818	
8	자신의 적응을 위한 충고	평가적 지지	3.21	0.850	
9	자신의 의견에 대한 존중	정서적 지지	3.19	0.838	
10	자신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조언	정보적 지지	3.14	0.802	

〈표 3〉 삶의 만족도 조사항목

문항	내용	조사도구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1	현재 살고 있는 곳	의식주	3.21	0.782	Cronbach's α 0.927
2	거주지의 사생활 보장정도	의식주	3.16	0.841	
3	거주지의 개인 공간	의식주	3.16	0.815	
4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의식주	3.30	0.743	
5	일상적으로 입는 옷	의식주	3.13	0.769	
6	사귀는 친구 수	친구 관계	3.07	0.835	
7	친구와의 친밀감	친구 관계	3.11	0.803	
8	친구와 같이 보내는 시간	친구 관계	2.95	0.770	
9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율성, 자아감	3.09	0.766	
10	심리적 상태	신체, 정신	3.08	0.768	
11	신체적 건강상태	신체, 정신	3.11	0.693	
12	정신적 건강상태	신체, 정신	3.22	0.752	
13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직업	2.97	0.815	
14	한 달 수입	경제	2.71	0.852	
15	주변사람 및 동료와의 관계	대인 관계	3.01	0.689	
16	요즘 하루를 보내는 방법	여가 활동	2.98	0.679	
17	현재의 삶	행복감	3.09	0.654	
18	느끼는 행복감	행복감	3.19	0.742	
19	삶에서 느끼는 기쁨	행복감	3.21	0.730	
20	전반적인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	자율성, 자아감	3.20	0.624	

4.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PASW 18.0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여러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변수 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철원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국적	중국	64	40.3%
	베트남	34	21.4%
	기타	61	38.4%
본인 나이	20-24세	14	8.8%
	25-30세	37	23.3%
	31-35세	56	35.2%
	36-40세	24	15.1%
	41세 이상	28	17.6%
남편 나이	35세 이하	3	1.9%
	36-40세	15	9.4%
	41-45세	52	32.7%
	46-50세	71	44.7%
본인 학력	51세 이상	18	11.3%
	중졸이하	25	15.7%
	고졸	92	57.9%
	전문대졸	35	22.0%
남편 학력	대졸이상	7	4.4%
	중졸이하	42	26.4%
	고졸	92	57.9%
	전문대졸	15	9.4%
종교	대졸이상	10	6.3%
	기독교	28	17.6%
	천주교	20	12.6%
	불교	20	12.6%
본인 직업	기타	91	57.2%
	있다	44	27.7%
	없다	115	72.3%
	100만원 이하	34	21.4%
월평균 소득	101-150만원	71	44.7%
	151-200만원	36	22.6%
	201-250만원	13	8.2%
	251만원 이상	5	3.1%
	0-3년	53	33.3%
결혼 년 수	4-7년	51	32.1%
	8-11년	34	21.4%
	12년 이상	21	13.2%
	결혼정보(중개)업체	77	48.4%
교제방법	종교단체	34	21.4%
	친척소개	33	20.8%
	기타	15	9.4%
	6개월 이하	122	76.7%
교제기간	7개월-1년	19	11.9%
	1년 이상	18	11.3%
	남편	33	20.8%
가족형태	남편과 자녀	78	49.1%
	시부모와 남편과 자녀	30	18.9%
	시부모와남편	11	6.9%
	기타	7	4.4%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결혼경험	초혼	145	91.2%
	재혼	14	8.8%
남편 직업	사무직	4	2.5%
	자영업(농·어업)	70	44.0%
	공무원·군인	5	3.1%
	노동직	38	23.9%
	기타	42	26.4%
자녀	있다	119	74.8%
	없다	40	25.2%
결혼 동기	종교적 이유	28	17.6%
	경제적 이유	28	17.6%
	이국 생활 동경	29	18.2%
	남편과의 사랑	71	44.7%
	한국 내 취업 목적	3	1.9%
국적취득 여부	있다	48	30.2%
	없다	111	69.8%

철원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국적은 중국이 64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주여성의 나이가 31~35세 56명(35.2%), 25~30세 37명(23.3%)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의 나이는 46~50세 71명(44.7%), 41~45세 52명(32.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직업은 없는 경우가 115명(72.3%)으로 더 많았고, 남편의 직업은 농·어업을 포함하는 자영업이 70명(4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101~150만원이 71명(44.7%), 151~200만원이 36명(22.6%), 100만원 이하가 34명(21.4%) 등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초혼(91.2%)에 자녀가 있고(74.8%), 남편(20.8%) 또는 남편과 자녀(49.1%)로 구성된 가족형태를 보였으며, 국적취득 여부에 있어서는 없는 경우가 111명(69.8%)으로 더 많았다. 교제방법은 결혼정보(중개)업체가 77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제기간은 6개월 이하가 122명(7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결혼 동기는 남편과의 사랑 71명(44.7%), 이국 생활에 대한 동경 29명(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영향요인의 도출 및 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여러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삶의 만족도를 단순하게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보다 요인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이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으며, 요인회전에 있어서는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법인 직접 오블리민(oblimin)을 적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과 변수들 간의 상관성 및 구조를 파악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표 5〉 삶의 만족도 요인분석의 적정성 검토

구분		통계량
고유값		7.987
KMO(Kaiser-Meyer-Olkin)		0.886
Cronbach Alpha		0.92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938.490
	df(p)	190(0.000)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표본 적합도를 의미하는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KMO값²⁾이 0.886으로 0.500 이상이고, Bartlett값³⁾ 역시 $p < 0.05$ 를 만족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요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는 Cronbach's α 값⁴⁾이 0.927로 나타나 각각의 요인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조사항목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가치 차원의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요인1, 능력 차원의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요인2, 그리고 통제 차원의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요인3이 핵심내재요인으로 도출되었다.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KMO값이 0.772로 0.500 이상이고, Bartlett값 역시 $p < 0.05$ 를 만족하므로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 값은 요인1이 0.842, 요인2가 0.691, 요인3이 0.827로 각각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자아존중감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	성분 (자아존중감)			Cronbach Alpha
	요인1	요인2	요인3	
2	1.018	0.025	0.041	0.842
1	0.600	0.093	-0.172	
9	-0.085	0.849	-0.098	0.691
10	0.087	0.655	0.121	
3	0.056	0.497	-0.028	
5	-0.017	0.347	-0.025	

2) 일반적으로 KMO값은 0.500 이상의 값을 보이면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일반적으로 Bartlett값은 $p < 0.05$ 이면 대각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4)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은 0.600 이상의 값을 보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문항	성분 (자아존중감)			Cronbach Alpha
	요인1	요인2	요인3	
7	-0.007	0.026	-0.848	0.827
6	-0.037	0.176	-0.814	
8	0.150	-0.132	-0.596	
4	0.358	0.012	-0.378	
고유값	2.833	1.582	1.074	-
KMO(Kaiser-Meyer-Olkin)				0.77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659.205
		df(p)		45(0.000)

- 주1) 요인1 : 가치 차원의 자아존중감
- 주2) 요인2 : 능력 차원의 자아존중감
- 주3) 요인3 : 통제 차원의 자아존중감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사항목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7〉 사회적 지지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	성분 (사회적 지지)		Cronbach Alpha	
	요인1	요인2		
10	0.980	-0.132	0.906	
9	0.859	-0.044		
8	0.680	0.087		
5	0.538	0.317		
7	0.525	0.275		
6	0.517	0.320		
4	0.072	0.815	0.722	
3	-0.056	0.798		
1	-0.009	0.534		
2	0.097	0.325		
고유값	5.015	0.584	-	
KMO(Kaiser-Meyer-Olkin)			0.90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841.853
		df(p)		45(0.000)

- 주1) 요인1 : 정서적·정보적 지지
- 주2) 요인2 : 물질적·평가적 지지

정서적·정보적 지지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 요인1과 물질적·평가적 지지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 요인2가 핵심내재요인으로 도출되었다.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KMO값이 0.909로 0.500 이상이고, Bartlett값 역시 $p < 0.05$ 를 만족하므로 요인분석이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α 값은 요인1이 0.906, 요인2가 0.722로 각각 나타나 각각의 요인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변수 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전진 선택법의 방법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의 변수를 먼저 투입하고, 변수를 단계별로 검토하여 제거하는 방식의 회귀분석이다.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요인들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지지 요인1(0.634), 사회적 지지 요인(0.589), 자아존중감 요인3(-0.488), 자아존중감 요인1(0.381), 자아존중감 요인2(0.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교제방법(0.232), 가족형태(0.204), 월평균 소득(0.176), 결혼 동기(0.162), 남편 학력(0.157) 등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요인들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구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1	자아존중감2	자아존중감3	사회적지지1	사회적지지2
삶의 만족도	1.000					
자아존중감1	0.381***	1.000				
자아존중감2	0.189***	0.319***	1.000			
자아존중감3	-0.488***	-0.680***	-0.350***	1.000		
사회적지지1	0.634***	0.255***	0.134**	-0.336***	1.000	
사회적지지2	0.589***	0.297***	0.109*	-0.419***	0.789***	1.000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다음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적·정보적 지지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 요인1, 통제 차원의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요인3, 월평균 소득, 결혼 동기의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사회적 지지 요인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요인3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0.674***	0.184	-	-	-
사회적 지지 요인1	0.530***	0.059	0.525	0.882	1.134
자아 존중감 요인3	-0.318***	0.061	-0.307	0.881	1.134
월평균 소득	0.144***	0.054	0.148	0.993	1.007
결혼 동기	0.117**	0.045	0.144	0.993	1.007

주1) R^2 : 0.532

주2) *: P < 0.1, **: P < 0.05, ***: P < 0.01

주3) 사회적 지지 요인1: 정서적·정보적 지지

주4) 자아존중감 요인3: 통제 차원의 자아존중감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R^2 는 0.532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53.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값⁵⁾은 1.752로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VIF값⁶⁾ 역시 모두 1점대로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여건이 안정되고, 남편과의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을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물질적 측면에서의 만족감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만족감이 충족될 때, 삶의 만족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좋아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기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가치 차원의 자아존중감이나 나에게 맡겨진 과제나 내가 정한 목표를 완수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능력 차원의 자아존중감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믿는 정도에 대한 통제 차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자신의 주변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 시 직접적으

5) 일반적으로 Durbin-Watson값은 1에서 3 사이의 값을 보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6) 일반적으로 VIF값은 10미만의 값을 보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적 지지나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보다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와 개인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철원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여러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가치 차원의 자아존중감, 능력 차원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통제 차원의 자아존중감의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정보적 지지와 물질적·평가적 지지의 2가지 요인이 핵심내재요인으로 각각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변수 군이 철원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적·정보적 지지, 통제 차원의 자아존중감, 월평균 소득, 결혼 동기의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 중 정서적·정보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통제 차원의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여건이 안정되고, 남편과의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을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즉 물질적 측면에서의 만족감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만족감이 충족될 때, 삶의 만족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자신의 주변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물질적 지지나 평가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한국 사회에서의 올바른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주여성들이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폭 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안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지원체계에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이방인 또는 주변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결혼정보(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결혼정보(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결혼 과정에서 돈을 지불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종종 불공정한 매매혼의 성격을 띠는 이유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결혼의 성사만 중요시하는 이들 결혼정보(중개)업체가 주선하는 국제결혼은 결혼 전 남녀 당사자들 간의 사전 탐색이나 관찰, 적응기간 없이 만남과 결혼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후 한국 생활 적응에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정책적으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종교가 개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자국민 혹은 동일문화권의 외국인들을 주로 만나는 장소가 종교 시설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종교시설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 개념의 시설을 마련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안정과 욕구충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방성 및 긍정적 인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 중 하나의 유형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한국의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정서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 등의 느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각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곧 그 사회구성원이나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요소이지만, 개인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차원의 문제이며, 사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그 역할은 공적인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철원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설문조사 응답자가 모두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었으며, 행정구역 상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이 이루어져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두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물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제언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고은주.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이. (2009).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안산시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2009).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만족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혜. (2009).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신. (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부부의 가족 건강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경섭. (2015).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한빛아카데미.
- 박옥임. (2007). 농촌다문화가정의 복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31-32.
- 박정숙.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 인구추계 및 사

- 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송병호. (200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내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정현. 2008.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및 정서 심리적 특성이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화. (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 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옥선.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안나.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계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혜. (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4). 「통계연보」.
- 한국여성개발연구원.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Curry, N. E., & Johnson, C.N. (1990). Beyond self-esteem: Developing a genuine sense of human value. In Research Monograph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Vol. 4). Washington DC: NAEYC.

접수일(2015년 10월 23일)

수정일(2015년 12월 02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18일)